



[라이프]
화려함 대신 친환경
플라스틱 줄인
설 선물 줄줄이
나



Life

[라이프]
스트리트 아트 입은
시바스 리갈 길
MZ취향저격
L2



서울시의회, SH 혁신안 강화·시립병원 인력충원 등 건의

시장·처리요구사항 등 총 34건 접수
스마트 헬스케어 효율성 검토해야
시립병원 인력 미달 대책 마련 주문

서울시의회가 SH공사 5대 혁신안 실효성 강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보다 효율적인 프로젝트에 예산 투자, 서울시립병원 인력 충원을 서울시

에 요구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수감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총 34건이 접수돼 23건에 대한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나머지 9건은 추진하고 있고 1건은 검토 중이며, 1건은 미반영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의회는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SH공사의 5대 혁신안에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 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작년 9월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웅 의원의 시장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과' 내용이 포함됐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벌금은 법률로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시정하라고 서울시

에 지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업무 관련 임직원의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2021년 4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 개정

에 의해 현재 SH공사에서는 직원과 그 가족이 공사 관여 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조사, 부당이익 취득이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수사 의뢰해 법률에 따른 벌금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기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베란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536억원이 허투루 쓰였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8년간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 사용된 예산과 안심위치 사업으로 스마트시계를 단시간에 나눠주는 예산이 비슷하다"며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된 1차 연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용역 중간보고 결과, 참여자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몸무게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함에도 서울의료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등 서울시립병원의 인력 정원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에 주문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는 "시립병원 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현실화를 추진하고 과다한 업무 부담을 덜 것"이라며 "국내외 학회 등 교육·훈련으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립병원의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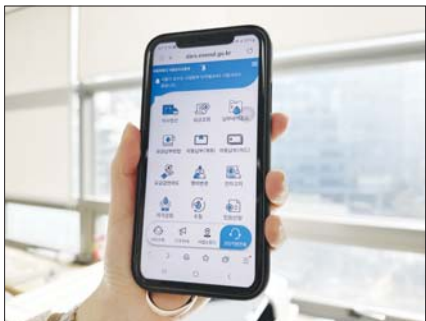
“수돗물 민원 ‘디지털 ARS’로 해결하세요”

서울시, 모바일 전용 서비스 시작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른 처리 가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수돗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ARS(자동응답시스템)'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ARS는 상담원 전화연결이나 음성안내를 들으며 기다릴 필요 없이, 고객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원하는 업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다. 365일 24시간 상담 시간에 제약이 없다.

본부 관계자는 “서울시 상수도 민원



디지털 ARS 이용 모습.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은 인터넷 사이버 고객센터(홈페이지), 카카오톡 채팅 로봇(챗봇) '아리수톡', 모바일 아리수(어플리케이션), 전화상담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전화상담

을 통해 신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며 "서울의 경우 상수도 전화 민원은 연평균 121만건에 달하는데 이사 철에는 수도요금 이사 정산을 하기 위한 전화가 몰려 오랜 시간 전화 연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디지털 ARS를 통해 빠른 상수도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폰으로 관할 수도사업소 대표번호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숫자판(키패드)에서 1번을 선택하면 디지털 ARS로 연결된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이용이 편리하다고 본부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만든다

3대 핵심과제로 선정, 세부계획 마련
도심숲 조성·친환경에너지 확대 등

고양시는 올해 저탄소 녹색도시 이행, 시민 환경기본권, 시민중심 환경안전

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23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고양시는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도심숲·친환경 에너지 확대, 시민중심의 환경 안전 구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고양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계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도 운영한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중립 중기 목표를 설정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 오염물질 배출차단, 도로 살수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 쾌적하고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기능숲 10개소, 공원 도시숲 6개소 등 포켓숲을 조성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1년치 자동차세 한번에 내면 7% 세액공제”

1월까지 납부 시 세액공제 혜택
이택스 홈페이지·앱에서 신청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은 1년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6월과 12월에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연 세액을 1월에 한번에 미리 낼 수 있다. 납

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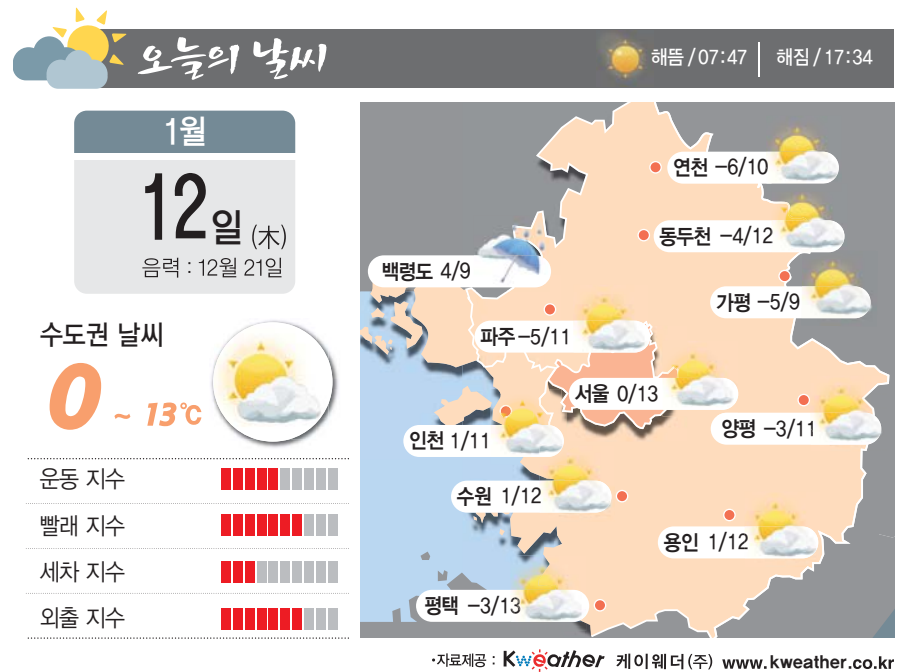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다.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형 틈새 돌봄 3종 서비스 시행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3종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3종을 부모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m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코인베이스, FTX 붕괴 여파로 직원 950명 해고 단행
▲영 해리왕자, “자서전서 탈레반 사살 자랑했다는 건 ‘위험한 거짓말’” /사진 뉴시스

▲일자동차 3사, 작년 중국실적 ‘마이너스’...도요타는 10년만에 감소
▲“한국정부, 한일 양측 기업 기부받아 배상 대신 갚는 방안 조율” /연론



▲러시아, 지난해 590조원 적자...옛소련시대 이후 두 번째 규모
▲국경 맞댄 미·멕시코·캐나다, 5년 만에 북미 3국 정상회담 개최 /사진 뉴시스